

‘소통사랑방·전매특허’... 지역 국회의원 현장행보

전진숙의 매주 특별한 허그

매주 금요일 지역구서 주민 만나
월요일 상경하는 ‘금귀월래’ 실천
조인철·전진숙 “주민 의견 최우선”
박지원·김원이 “지역구 현안 해결”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장소통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못지않게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며 매주 금요일 밤 지역에 내려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월요일 아침에 여의도로 돌아가는 ‘금귀월래(金歸月來)’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소통 행보’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조인철(광주 서구갑)·전진숙(북구을)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구에서 주민·오피니언 리더 등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1월 ‘330 시민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는 월·금매일 오후 3시30분 지역구 내 현장을 찾아 주민을 만났다. 이곳에서 전달된 시민들의 정책 제언은 이후 선거 공약 등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당선 이후에도 구·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소통사랑방’을 개소해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사랑방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양동시장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상무시민공원 △화정2동 힐스테이트광장 인근에서 진행된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은 크게 중앙과 지역으로 나뉘는데, 둘 다 중요한 일하기에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추고 싶었다. 무엇보다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싫었다”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주민과 만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실질 해결사’인 시·구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주민들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풀이가 된다’고 반응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전매특허’(전진숙의 매주 특별한 허그)라 이름 붙인 주민간담회를 통해 매주 토요일 지역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과 13일 북구 운암·건국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 소통과 의정보고 등을 진행했다. 다음 전매특허는 일곡·용봉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첫 모임에서 주민들이 각자 케이크를 준비해오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역 의원과 주민이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람 사는 얘기를 하다보니 상호 유대감이 두터워졌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는 최대한 국회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 이견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이 1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4관에서 열려 관람객들이 ‘큰 새와 검은 얼굴’ 등의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는 오는 9월 29일까지 열린다.▶관련기사 15면 김양배 기자

최근에는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북부순환도로 1공구·유기견보호센터 등 현안들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단순히 준비된 공약만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재선 의원이자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임명된 김원이(목포) 의원도 금요일마다 지역구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주에는 삼학부두 여객터미널에서

시민들과 만남을 가진 김 의원은 이후 민주당 목포시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목포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결의하고, 오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예산 협의에도 나섰다. 2면에 계속 오지현·정성현 기자



완도군에 시간당 50mm 비가 쏟아진 16일 완도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돼 주차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완도소방서 제공

전남 시간당 최대 182.5mm ‘폭우’... 피해 속출

주택 124채·농경지 279ha 침수
도 “주민 사전대피 등 재난 예방”

16일 새벽부터 이어진 폭우로 전남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주택 124채와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해남 46채, 진도 33채, 완도 14채,

신안 10채 등 전남에서 주택 총 124채가 침수됐으며 이에 주민 65명이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경지의 경우 279ha 규모의 비가 침수됐으며, 진도 150ha, 완도 100ha,해남이 13ha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 4곳과 국립공원 2곳, 산책로 10곳, 하상도로 4곳, 하상 출

입구 등 49곳이 통제됐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토사유실 및 파손 등 총 11개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까지 별다른 해상통제나 공항결항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남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높게 집계된 곳은 신안 흥도로 182.5mm를 기록했다. 이어 진도 의신이 169mm, 완도

보길도가 158.5mm로 높았다. 계속된 폭우로 전남도는 산사태 취약지 134세대 총 197명의 사전대피를 통해 재난 사전 예방에 나섰다.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이날 오전 12시부터 비상 2단계 근무 태세를 유지하며 피해 상황 점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8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해 위험지역 현장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청정해남 농수산물 종합소평물
해남미소

땅끝이라 더 깨끗하다! 해남이라 더 깨끗하다! 명품이 따로 있나? 해남 먹거리가 명품이지!

청정 땅끝해남에서 정성으로 키운
명품 농수특산물로 건강과 행복을 만드세요!

문의 080-859-1100 | www.hnmiso.com